하나님의 사람인가 돈의 사람인가?

(딤전6:11~16)

11.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12.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13.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1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15.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16.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인가 돈의 사람인가?>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어제, 하와이에서 열린 여성 프로골프대회에서 미셸 위라고 하는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고향이 하와이에요, 그래서 더 뜻 깊은 우승이 되었는데, 이 미셸 위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 장면을 보니까 하얀 모자를 쓰고 있는데 그 모자 옆쪽에 까만색 리본이 달려 있어요.
해설자의 말을 들으니까 진도 앞바다에 침몰한 세월호에서 불행한 일을 당한 가족들과 같은 마음으로 그 불행에 참여하며 또 한 명이라도 더 생존자가 발견되어 구조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표현으로 검정색 리본을 달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우승한 미셸 위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외국선수들이 검정색 리본을 모자에 달고 시합에 임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진도 앞바다에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일어난 참사로 인해서 많은 귀중한 목숨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은 단지 안타까워하면서 한 명이라도 더 생존자가 있기를 바라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의로운 일을 하고 돌아가신 그런 분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아무리 우리가 먹고살기 바쁘게 뛰어다니며 살았어도 이때쯤이면 좀 더 철학적이 될 필요가 있고, 사는 것은 무엇이고 죽는 것은 무엇이냐, 도대체 삶과 죽음이 무엇이기에 그 17, 18세 되는 젊은이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었느냐?
이런 문제를 좀 철학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좀 더 나가서 현실적으로만 살았던 우리들이 종교적이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기왕의 신앙인이라면 좀 더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를 갖는 것이 그들의 비싼 희생을 치른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그들의 죽음을 좀 더 값진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우리들이 그들의 죽음을 보면서 삶과 죽음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는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엄마가 아이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나 봐요.
'네가 만일 세월호에 탔었다면 제일 먼저 기도를 해라, 그런 특별한 상황이 주어질 때 네 마음에 하나님을 기억해라,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고 기도하면서 돌아가시지 않으셨느냐, 너도 네 영혼을 아버지께 맡긴다는 기도를 드리면서 그 시간을 맞이해라' 이렇게 아마 가르쳤나 봅니다.
당연히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가정에 있고 할 때의 태도와 그런 특별한 상황을 맞이할 때의 마음가짐이 일관되고 동일할 수는 없을 것인가?
특별한 상황이 주어졌다고 해서 특별한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을 안 가져도 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평소나 세월호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나 일관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요셉과 다윗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얼마나 끔찍한 사랑을 아버지에게서 받았습니까?
그렇게 사랑받고 자라던 열일곱 살짜리, 정말 딱 고등학교 2학년 나이 아닙니까? 이 요셉이

노예생활을 하는데, 보디발 장군이 너무 그 노예가 충성스러우니까 모든 걸 다 맡겼어요.
그러면 요셉은 왜 이렇게 살았냐? 물어봤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모르지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지.
억울하고 분해서 날마다 눈물로 지새우고 살아남아서 형들에게 복수할 것을 다짐하며 그렇게 살아도 타당한 그런 형편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살았기에, 보디발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족속인 타국에서 온 노예에게 모든 가정살림을 다 맡겼겠습니까?
나중에 요셉의 고백을 보면 형들과 만났을 때, 형들이 나를 배반하고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결국은 노예생활을 누가 준 거냐?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노예생활에 임했던 거다.
그렇게 열심히 일 잘해서 온 집안을 다스리는 청지기 입장이 되었다가, 또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아 또 억울하게 다시 옥에 갇히지 않느냐, 그때도 요셉은 일등 죄수가 되었다.
그래서 감옥에서 일하는 간수들이 모든 일을 또 요셉에게 다 맡긴다, 왜 그랬을까?
감옥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학교나 세월호나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고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고를 할 수 있는 것, 최고의 노예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면 최고의 죄수가 되는 것처럼, 세월호에 들어가면 최고의 조난당한 배의 승객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항상 하나님께서 지금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지금 내 말과 행동의 이유가 하나님이 지금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문제는 어제 부활주일이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예화를 하나 드셨어요.
뉴욕의 할렘 가에 고등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80%가 흑인이고 20%가 spanish 계통의 학생이래요.
문제아들만 모아놓은 최악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 교장선생님이 부임하셔서 7년 만에 미국 공립학교 중에 1등 학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간단해요, 교장선생님께서 동부 IVY 리그에 속한 대학들의 사진들을 학교 벽에 붙여놓고, 기회만 되면 아이들을 데리고 하버드, 예일, 브라운, 프린스턴 같은 명문대학을 견학시키는 겁니

다.
그래가지고 아이들 마음속에 꿈과 의욕이 생긴 겁니다.
아무런 꿈이 없던 아이들에게 꿈과 의욕이 생겨서 열심히 공부하고 제1의 공립학교가 되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빠가 어제 한 요셉과 다윗의 이야기, 하나님이 주신 일로 생각하고 양치기 일을 했기 때문에 사자와 곰이 와서 양을 빼앗아갈 때, 다른 양치기 같으면 사자가 물어 가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한 마리 포기하고 말 것인데, 끝까지 쫓아가서 사자의 입을 찢고 양을 구해내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양을 지키라고 맡기신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자, 그 얘기와 이 할렘가의 학생들이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대학의 사진을 보면서 꿈을 갖게 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로 바뀌게 된 이야기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그러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지금 이 할렘가의 고등학교 학생들을 몰고 가는 힘은 꿈과 비전입니다.
똑같은 나이의 요셉과 다윗을 말하고 행동하게 하고 몰고 가는 힘은 지금 내게 주어진 여건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대학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지금 고등학교 시절의 말과 행동들이.
차이가 분명히 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디모데를 향하여 사도바울이 말합니다.
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구약에서는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선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어도 같은 처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른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에요.
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단체로 불렀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개별적으로 부른 일은 많지 않아요.
근데 신약에 오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각자가 다.
그러면 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똑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요, 똑같은 직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이라고 하는 현재 내가 처한 여건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돈의 사람인 겁니다.
바로 앞의 부분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결론이었어요, 근데 무엇의 결론이었습니까?
신앙에 있어서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
왜 다른 교훈을 따르느냐?
다른 교훈이라는 게 결국은 신앙의 궤변인데,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이 세상 것이 들어와 있어서 그 들어온 것들을 현실로 손에 쥐려고 하다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생각해버리게 되는 궤변론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이런 궤변론자들이 되는 거예요, 신앙적 소피스트들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피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릅니다.

지금 왜 행동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행동하고 있는 것이 가족의 부양을 위해서, 가족이 우선이면 가족의 사람입니다.
내가 왜 이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까?
5년 뒤 10년 뒤에 이룰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꿈과 비전의 사람입니다.
꿈과 비전의 사람이라는 게 너무 귀에 익으니까, 그래야 되는 것처럼 온 세상이 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꿈과 비전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제3계명까지도 범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꿈과 비전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돼요.
지금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래서 지금을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획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지금 내가 처한 이 여건에서 하나님 때문에.

제가 우리 아이와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할렘가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은 자기의 미래를 하버드 대학생, 프린스턴 대학생, 예일 대학생으로 꿈을 꾸고 공부를 하는데, 넌 꿈이 없지 않느냐?
미래에 뭐가 될지에 대해 어떻게 알겠냐?
그랬더니 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가 미래에 뭐가 될 것인가에 대한 꿈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을 태어나게 하시기도 전에 애굽,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그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꿈과 계획이 있으셨는데, 어떻게 그 꿈과 계획에 딱 맞아떨어지게 살 수가 있겠느냐?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여건에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있는 힘을 다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매 구간을 살다보면 총리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비전에 맞닥뜨려지게 되지만, 지금 하나님이 주신 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생각 없이 대충 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생각 이외에 다른 비전과 꿈을 네 스스로 갖는다든지, 돈을 벌기 위해서라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든지, 라고 해버리면 벌써 어긋나 버리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에 맞아떨어지겠느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획과 비전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방법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에게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당장 돈을 벌어야 되고 당장 시험을 봐야 되고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더미 같은데 무슨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싶지요?
이것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에 두신 그 비전과 계획에 적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와 경건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의는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시고, 경건은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들어 하는 태도입니다.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사는 내가,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그 빛이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보이는 어떤 것보다 만져지는 어떤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 이게 바로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마음에 들어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과 세상과 나의 삼각관계에서 어떻게 내가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이 삼각관계에서 이 세상 그 어느 것에도 내 마음을 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십니까?

나를 보면 마음에 들어 하실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온 지구 위에 아담 이후 이제까지 살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실 수 있는 인간은 딱 한 분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마음에 들어 하시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는 한 의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과 사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하나님과 나의 삼각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립니까?
믿음이란 마음심장을 이식해 드리는 겁니다, 자꾸 세상에 끌려가니까.
역시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대해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사랑은 뭡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리게 될 경우에는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기쁘다는 확신을 가지고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나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한 상태는 아니지만, 내 마음의 궁극적이고 완벽한 만족과 기쁨은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드린다는 것과 같은 뜻이죠.
이렇게 될 때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는 기쁨을 위해서 얻을 것이 없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마음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제대로 작동시켜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서 내 마음에 기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지는 것들에 대해 다 죽고, 하나님께만 내 기쁨의 이유를 두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릴 때,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연히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내 생각이 움직입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월호에서도 그렇게 움직인 사람들이 있지요?
어쨌든 일관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만 드리고, 이유는 하나님에게서만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으로부터 나의 기쁨을 얻으려 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내와 온유는 뭡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성령님께서 감각이 되어주셔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느낍니다.
승천하신 주님을 느낍니다.

이때 우리의 소원은 사도바울의 소원처럼, 이게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1년 2년, 10년이 지나가면서 점점 더 하나님과 친해지고 영이신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고 그 관계가 아주 돈독해질수록 우리 마음의 소원은 이 세상을 떠나서 빨리 주님과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가서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이 소망이 12절에 나오는 '영생을 취하라'는 얘기에요.
영생은 주어진다고만 생각하잖아요, 물론 주어지지만 그러나 주어지는 것과 내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바라는 것과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란다고 주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미 주어지기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주어지기로 약속된 것을 지금 갖고 싶어 하는 것, 이게 영생을 취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인내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은 인내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느끼고 하늘나라의 좋음을 깨닫게 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 세상의 하루하루 삶이 연장된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무병장수가 좋다는 것은 완전히 불신앙 중에 대표적인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제대로 돼있다고 병이 안 듭니까?
제가 볼 때는 올바르게 믿음을 회복하는 중에 병들어 죽는 장로님 많이 봤습니다.
결국은 병이 나서 죽는 거지, 끝까지 병이 안 난다면 끝까지 안 죽겠지요.
그러므로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게 속된 말로 그냥 따봉이 아닙니다.
그게 무조건 장땡이 아닌 거예요.
지금 내가 육체로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인내하면서 살아야 되는 상태가 되었습니까?
그게 참 믿음이에요.
하늘에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거죠.

그리고 온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주어져 있는 모든 여건과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만나게 하시고 허락하신 사건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온유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게 수용하는 것,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을 인내하면서, 이 세상에서 뭘 얻겠다고 손에 쥐겠다고 동분서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이라도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내게 좋지만, 너희들 이방인들을 위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사명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내가 아직도 이 땅에 살고 있으니 결

국 나는 인내하고 있는 것이다,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 마음을 참고 인내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내일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하나님 말고 우리 마음에 집어넣을 수 있기에 가장 강력한 유혹을 갖고 있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는 말씀 뒤에 오늘 말씀이 있고, 오늘 말씀 뒤에 다시금 이 세대의 부자들에게 네가 이렇게 권고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돈의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가족의 사람이십니까, 내 인생의 꿈과 비전의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지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을 마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언제 어디서나 내게 주어진 지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그 이외의 모든 마음에 흐트러짐을 십자가로 가다듬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만 지금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